

Underwood의 대학설립 차별성

- 고등교육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

최재건¹⁾

1. 서론

한국에서 서구형 근대대학은 세브란스, 숭실, 연희, 이화와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개신교 학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학의 기원과 발전은 교회와 연유되어 있다. 11세기 대학의 출현이 그러했고, 근대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해 대학이 세워져 인류문화의 발전과 창달에 공헌해왔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비롯한 아이비리그의 대학들도 교회에 의해서 세워졌고 발전되어 있으며, 나중에 관공립의 주립대학들이 생겨나도 학적인 우월성을 고수해왔다. 19세기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대학을 세워 피선교지의 교육향상에 공헌하였다. 맑시스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중국도 선교부 경영의 Yen Ching University와 상해 St. John's University가 중국 대학의 정상적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독교 대학이 먼저 설립되고 발전했다가 후발로 국립대학이 설립되면 학적 우월성이나 평판에서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수년 전에 필자는 숭실대학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 때 평양숭실학교장을 역임한 McCune(윤산운)의 외손자인 Kingdon 교수(Wisconsin 대학, 역사)가 숭실의 2세기를 전망하는 강연에서 논찬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필자는 숭실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최고의 대학이었는데, 왜 지금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같은 질문을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학교에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 근대대학의 설립"이란 연구 과제를 천착하는 중에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설립 초기에 겪은 진통을 밝혀 한국근대 대학사 서설의 일환으로서 초창기 연세대학교사를 구축해보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H. G. Underwood 선교사가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 C.C.C.)을 창립했을 때 평양 주재 선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 일을 통해 그가 설립하려던 대학이 어떤 형태의 대학이었고 그 이념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선교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창립 전부터 초일류대학을 꿈꾸어왔던 설립자의 뜻과 그가 지향했던 모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연세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지표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기대한다.

연희전문 설립을 전후하여 근 15년간 미국의 장로교·감리교 선교본부들과 주한 선교사들이 대학을 평양에 세우자는 측과 서울에 세우자는 측으로 나뉘어 끈질기게—인명피해가 날 정도로—투쟁하였다. 그 때 한국과 미국을 오갔던 수천 페이지의 편지보고서들이 미국 장로교 Archives에 "College

1) 강사 약력 :

- 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객원교수
- 학력 :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Ph.D., 예일대학교 대학원 MA,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S.T.M, 토론토 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사
- 주요 저서: 조선후기 서학의 수용과 발전(한들)
- 역서: 미국 캐나다 기독교역사(CLC)

Question"이란 항목으로 분류·보관되어 있다. 그런데도 『연세대학교사』(80년사)나 『연세대학교 백년사』는 그 분쟁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 당시의 심각했던 분위기를 간과하고 있다. 교회사나 대학사 연구자들도 그 사건을 2차 자료를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취급할 뿐이었고, 1차 자료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분량이 어떠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연세대학교 백년사》는 4권으로 된 방대한 저술이지만 연회전문 설립의 진통과정이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숭실대학 백년사》에 서울과 평양 선교기지 및 뉴욕 선교본부 사이의 쟁점이 간단하게나마 언급되어 있다. 연세대학의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원두우의 독자로 연회전문 교장이었던 원한경이 1926년에 출판한 《한국의 근대교육》(*Modern Education in Korea*)이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기독교교육이 한국 근대교육을 도입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쓴 통사적 저술이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학교들의 교육활동을 광범위하게 분석·정리하고 새 시대 교육전망을 제시하여 연회전문은 물론 일제시대의 교육사를 이해하는 데도 가장 권위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연회전문문의 문과과장이었던 James E. Fisher는 《한국 민주주의와 선교교육》(*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1928*)을 출판해 주한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연회전문 교수들이 가졌던 경향성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학생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보다 "삶을 더욱 잘 이해하여 가장 중요하고 운택한 삶을 살게 하는 요소들을 더욱 잘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쉽게 말해서 기독교 개종과 기독교교육 자체만을 교육선교 사업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한국인의 삶의 향상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 목표를 수정하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R. H. Baird가 부친의 선교활동을 기록한 《한국의 윌리엄 M. 베어드: 프로파일》(*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은 타자기로 작성된 미간행의 저술이지만 거의 50여 면에 대학문제(College Question)을 할애하여 당시의 논쟁상황을 비추고 있으며, 특히 그 문제에 대한 평양 측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미국 장로교 Archives인 필라델피아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에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College Question" 문서들이다. 이 자료들은 본 연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연전 신학과장으로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던 Harry A. Rhodes의 《주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사, 1884-1934》(*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Vol. I*)는 연전 출범 때의 문제를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Rhodes와 A. Campbell이 공저한 같은 제목의 Vol. II(1935-1959)는 일제 말 기독교교육계의 상황을 일별할 수 있게 한다. Korea Mission Field 1938년 8월호는 거의 한 호 전체에 걸쳐 Chosen Christian College를 다루어 당시의 상황을 영문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편찬된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회전문》(연세대출판부, 2005)은 연회전문의 학문적 여로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소개서이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간집인 《언더우드자료집》I, II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출간되었는데, 앞으로도 몇 권 더 출간될 예정이다. 같은 종류의 자료로서 김인수가 편집 번역한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도 있다. James E. Adams 선교사가 작성한 <미국 북장로교의 한국선교에서 일어난 난제의 보고서>("Presentation of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in the Chosen(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미간행)는 1920년도 미국 장로교 총회에 제출된 '대학문제'(College Question)로 평양측의 의견을 대변한 보고서이다.

2) J.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0 Reprint), p. 53.

2.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 설립과정

1) 배경

조선왕조가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외국 문물이 도래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급격히 요청되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이 구국의 첩경"이라는 개화파의 주장은 일반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다.³⁾ 국권회복과 민권사상을 추구했던 계몽운동은 그 교육진흥과 산업개발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였다. 계몽운동가들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본보다 더 높고 깊은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육구국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때 수용되고 성장했던 기독교도 한국에 근대문화를 소개하였고 자유와 민주, 평등 박애를 알게 하였다.⁴⁾

한국교회는 선교 4반세기 만에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부국강병을 통한 민족의 부활을 기독교에서 찾으려는 자들과 영원한 삶을 찾아 새 종교에 귀의하려는 자들이 많았다.⁵⁾ 1904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이 상실되자 이동휘, 이승훈, 남궁억과 같은 선각자들의 교육구국 호소와 서북학회, 국민교육회와 같은 학회들의 활동으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장·감 선교회들도 교육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교육을 통해 자유주의를 고취하고 자주·항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다.⁶⁾ 1885년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세운 것을 필두로 선교사들에 의해 잇달아 서울의 이화학당, 배화여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평양의 光成學校, 崇實學堂(1897)이 세워졌다. 20세기 초에도 평양의 崇義, 개성의 호수돈, 대구의 啓星, 信明, 선천의 信聖, 保聖, 전주의 紀全, 新興, 광주의 崇一, 수피아 등이 세워져서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도입하고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801개교나 되었다.⁷⁾

가장 먼저 설립된 근대학교는 중등과정인 배재학당이였다. 장·감 선교회들은 이처럼 중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하다가 점차 대학부를 개설하였다. 한국에서 근대대학의 씨를 뿌리고 그 발판을 만든 것은 H. G. Underwood, Baird, O. R. Avison 등을 비롯한 여러 미국인 선교사들이였다.⁸⁾ Allen 의사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에서 중상을 입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의 생명을 구하여 임금의 사랑을 받는 시의가 되었다. 이로써 선교활동이 대로가 열렸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병원설립안을 궁중에 제출하였다.⁹⁾ 1885년 봄에 허가를 받아 광혜원(곧 제중원으로 개칭)이란 이름으로 1885년 4월 10일에 개원하였고 다음해 3월 29일에 병원부속 의학교를 세워 교육하기 시작하였다.¹⁰⁾ 이때 Allen 의사, Heron 의사, Underwood가 교수진을 이루고 있었다.¹¹⁾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던 O. R. Avison이 선교사로 병원에 합류했으며, 고종의 시의로 있으면서 1895년 소요 때 국왕을 구출하기도 하였다. 그가 첫 안식년(1899-1900)을 맞아 귀국했을 때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Louis H. Severance에게서 \$15,000을 회사 받아 병원부지를 마련하였고,¹²⁾ 1899년에 세브란스의 학교를 발족

3) 李能和, 『朝鮮 基督教及 外交史』(下)(서울: 朝鮮 基督教 彰文社, 1928), p. 201.

4) 李宣根, 『韓國史』(最近世編)(서울: 乙酉文化社, 1961), p. 745.

5) cf.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he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0, p. 347.

6) 李萬烈, 「기독교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화」, 『淑大史論』 7, 1972, p. 43.

7) 朝鮮總督府, 『朝鮮の保護及併合』 1918, p. 378.

8) 馬越徹, 한용진 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59.

9) 『韓國外交文書』 第十卷 美案(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p. 111-112.

1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백년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pp. 27-35.

11) W. B. Scranton, "A Short Start of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Western Medicine"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7 (July, 1908), p. 99.

시켰으며, 1904년 9월 신축된 새병원을 개원하였다. 한국 의료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병원 안에서 선교회는 조선인 의학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번역·편찬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했다. 주한 북장로교 선교회는 1905년 의학부 과정을 7년으로, 약학부 과정을 3년으로¹³⁾ 정해 의학교육에 박차를 가했고, 1908년에 6월 7명의 첫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1909년에는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로 개명하였고, 성공회, 남북감리교, 남장로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가 의학교 운영에 가담하였다.¹⁴⁾ 폭증하는 교육열로 중등학교가 증설되자 중등교원 양성을 위해서도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인식되었다. 1905년 숭실학교에 대학부가 개설되었다.¹⁵⁾ 이때 감리교 선교회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경영의 승실과 연합하여 대학을 설립 운영하자는 안에 찬동하였다. 두 선교회가 연합하여 대학을 경영하기로 한 것은 재정 면에서나 교육대상 확보 면에서나 진일보한 방책이었다. 학교의 이름은 "P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and Academy"라 하고 한국어로는 "평양 예수교대학"이라고 표기하기로 했다.¹⁶⁾ 1906년 8월 장로교 선교부는 숭실학교에 대학부를 설치하는 일을 허가했다.¹⁷⁾ 이때 Baird는 감리교 선교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운영비의 1/3만 부담하고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에 합의하여 감리교도 참여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이름이 Union Christian College(합성 숭실대학)이라고 바뀌었다.¹⁸⁾ 1908년에는 대한제국 학부(대신 李載崐)으로 부터 인가를 받았다.

2) 연희전문설립과정

한일합방 후 새로운 규칙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선교사업도 새로운 시대형편에 부응할 것이 기대되었다. 언더우드는 그 전 1905-06년부터 서울에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에 관해 뉴욕의 장로교 선교본부와 주한 선교사들과 더불어 논의해왔다. 그는 사실 1887년부터 대학교와 신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을 H. B. Hulbert와 A. T. Pierson에게 펼쳐보였다.¹⁹⁾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정동의 집 근처에 대학부지도를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1888년 9월 8일에는 Hugh Dinsmore를 통해 외아문 독판 서리 李重七에게 대학설립을 요청하는 공환을 보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지도와 교육을 위해 미국의 대학과 같은 학교를 세우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²⁰⁾ 그러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1889년 1월 25일에 대군주의 하교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회답을 받고 대학 설립의 꿈을 일단 접었다.

1888년 말에는 다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학교가 있는 종합대학의 설립의사를 전했다.²¹⁾ 주로 지방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본연의 뜻인 복음전도에만 주력하기를 원했으나, 언더우드는 감리교 선교부의 학교사업을 소개하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장로교 혹은 최소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12) North Presbyterian Report for 1902, pp. 189, 327.

13) Minutes of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North, 1905.

14) 『연세대학교 백년사』, 1985, pp. 27-35.

15) 『숭실대학교 백년사』, p. 129.

16) 평양예수교대학교 정관 및 부칙, 『숭실대학교 백년사』, p. 161. 그러나 실제로 1905년 감리교가 운영에 참가한 후부터는 "합성 숭실대학"이라고 불렀다. Ibid., p. 169.

17) The Report of the North Presbyterian Mission, 1907, p. 268.

18) Ibid;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mimeograph, p. 67. 136.

19) L. H. Underwood, 『언더우드』, p. 55; Underwood, "A Powerful Appeal from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March, 1888, p. 210.

20) 『舊韓國 外交文書』, 「美案」, 卷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문서번호570, 「惠論 및 元杜尤 學堂設立의 申請 准許要請」.

21)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wood, 1889. 1 7.

학교가 개설되기를 바라지만 기독교는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렸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다른 선교회는 저 멀리 앞서 가 있어서 우리가 곧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만일 자금이 오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면 우리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더 큰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²²⁾

Dr. Wells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교육사업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선교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도움을 주면서 기독교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판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의사들까지도 선교사업의 추가발전은 교육활동에서 급속하게 일어나리라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²³⁾

피어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왕립병원[제증원]과 의사양성학교 및 지금 내가 시작한 고아원[언더우드학당]이 있으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독교대학의 설립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⁴⁾ 그는 의과대학을 모체로 하는 종합대학의 설립 의사를 피력하여 엘린우드 선교본부 총무에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큰 학급으로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자는 의학당을 새 학교의 분과로 만들면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²⁵⁾ 1906년부터 서울에서 대학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조선교육협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대학 설립 안은 선교본부에 대지구입비로 신청한 \$10,000 지원요구가 1909년에 거부되면서 보류되었다.²⁶⁾ 이 일을 계기로 서울지부와 평양지부, 선교사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언더우드는 선교본부의 Brown 총무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에 대학설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²⁷⁾ 중등학교를 졸업한 진학지원자가 많아 또 하나의 대학이 필요한데 조선 총독부는 조선 안에 대학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있으며, 평양에 승실이 있지만 감리교가 배재학당에 대학부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감리교와 연합하여 서울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평양과 다른 형태의 대학을 서울에 세우려 했던 언더우드의 꿈은 이처럼 시발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로도 그는 ① 학교의 필요성 ② 학교의 장소 ③ 학교의 성격 ④ 총독부의 교육규칙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선교본부가 먼저 문제제기를 해왔다. 조선에 대학이 1개로 족한가, 2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었다.²⁸⁾ 평양측의 선교사들은 1개의 college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언더우드는 인구 1,700만의 한국에 대학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이므로 두 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⁹⁾ 당시의 장로교 한국선교회에는 서울과 평양에 두 개의 대학을 유지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³⁰⁾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언더우드는 계속 두 대학 설립안을 주장하

22) H. G. Underwood to Dr. Ellinwood, 1889. 1. 22.

23) H. G. Underwood to Dr. Wells, 1887. 4. 8.

24) H. G. Underwood to Dr. Pierson, 1887. 11. 29.

25) H. G. Underwood to Dr. Ellinwood, 1889. 1. 7.

26) Lillias. H. Underwood, 이만열 역,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pp. 274-75.

27) H. G. Underwood to Dr. Brown, 1911. 7. 18.

28) Brown's letter to Underwood, 1911. 8. 7.

29)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Y: International Press, 1926), p. 140.

30) Brown's letter to Underwood, 1911. 8. 7.

였다. 그는 송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지 않고도 서울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³¹⁾ 이런 생각은 그의 형 John T. Underwood와 Louise Severance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감리교 선교회는 평양에 송실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경영에 참석했지만, 서울에서의 대학설립안이 논의되자 송실을 폐교하고 서울에 하나의 연합대학을 설립하자는 설에 동조하고 이후로 계속 서울을 선호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 연합의 교육평의회 탈퇴도 불사할 정도로 강경하였다. 감리교 한국 선교부의 입장과 언더우드의 입장이 같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서울에 대학을 세운다는 데서 일치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되어갔다.

인구가 1,700만이 되는 나라이므로 두 개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언더우드의 새 대학추진안은 마켓을 중심으로 한 평양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 반대를 받았다.³²⁾ 평양 측은 기존의 평양 송실대학에 대한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두 개의 대학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정적으로도 송실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았다. 1911년 주한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연차대회에서 또 다른 한 대학의 설립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1912년에도 주한 선교회는 한국에는 한 개의 대학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의 대학을 세우는 것이 확정되면 그 장소가 서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평양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³³⁾ 주한 선교사들은 어느 도시에 대학을 세울 것인가를 두고 서울에 세울 것을 주장하는 파와 평양에 세울 것을 주장하는 파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선교본부(Mission Board)와 주한 선교회와 각 선교기지들 사이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다. 평양 지역을 위주(소위 서북계)로 한 주한 선교회는 1910년부터 서울에서의 대학설립안을 보류시키는 결정을 했다.³⁴⁾ 평양의 교세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남장로교와 호주장로교 선교회들이 여기에 동조했던 것도 그들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먼저 내한한 지역은 경인지역이었으나 자발적 중산층이 많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과 황해도에서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였다. 장로회신학교와 송실대학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들도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장로교 독노회나 1912년 첫 총회의 모임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따라서 교권이 소위 이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³⁵⁾ 당시 북장로교 선교사는 총 117명이었고, 그 중 서울주재 선교사는 27명, 평양 주재 선교사는 26명이었으나,³⁶⁾ 그 외 이북의 강계, 선천, 재령 주재 선교사들과 호남의 남장로교 선교사들, 경남의 호주 선교사들이 평양주재 선교사들과 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지역은 선교사의 숫자나 교세가 평양보다 약했다.

언더우드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은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인 서울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장로교 선교사들의 숫자는 작았으나 모든 교파의 주한 선교사들 가운데 1/3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감리교 선교본부의 A. B. Leonard는 뉴욕의 Brown 총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Noble이란 주한 감리교 선교사와 자기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데도 서울에 대학이 설립되기를 바란다며 하면서 다른 감리교 선교사들의 동조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겸하여 전했다.³⁷⁾ Noble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기지(Station)가 있는 해주, 서울, 제물포, 원주, 수원, 공주의 중심지는 서울이고, 북감리회의 선교 중심지도 서울이며, 남감리회도 선교지역인 송도(개성)에 대학을 설립할 계

31) R. H. Baird, op. cit., p. 156.

32) Educational Committee, *The Minutes*, 1910, p. 82.

33) Brown's letter to Underwood, 1911. 8. 7.

34) "Educational Committee", *The Minutes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0, p. 82.

35) 참고로 평양은 조선시대에 자립적 중산층이 많았고 유학으로도 실력 있는 곳이었다. Harvard 대학의 Edward Wagner는 「國朝文科 榜目」에 나오는 조선시대 과거합격자 14,000여 명을 분석하여 평안도에 근 1,000여 명이 합격했으며 그 수는 유생이 많은 경상도보다 많았다고 분석하였다. cf. Edward Wagner,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 (Mimeograph), 1970

36) "Appointment Committee's Report", "Appendix IV", *The Minutes*, 1912, pp. 103-106.

37) A. B. Leonard to Brown, 1911, 10, 13.

획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에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³⁸⁾ 남북 감리회는 서울에서의 대학설립을 원했다. 감리교의 G. Jones(조원시)는 장로교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 서울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언더우드를 격려했다.³⁹⁾ 브라운을 향해서는 문제를 ①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세울 것인가, 두 개의 대학을 세울 것인가? 하나라면 ② 그 위치는 평양이나, 서울이나, ③ 교파적이냐 연합이나 라고 정리하고 대체적으로 하나의 대학을 교파연합으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학생의 대학교육을 위해 일본 유학이 권장할만하나 일본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해 외국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대학이 서울에 새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치도 그의 사견으로는 서울을 선호한다고 하면서⁴⁰⁾ 그 이유는 서울이 ① 수도이며, ② 철도의 중심지로 각지에서 학생들이 올 수 있으며, ③ 기독교의 중심지로 장로회, 감리회, 성공회, 성서공회, 구세군,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 선교회들의 본부이고 함경도에서 오기에도 평양보다 서울이 편리하며, ④ 종교, 문화, 상업, 산업, 교육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인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며, ⑤ 지금도 배재고등학교에서 대학부를 운영하고 있고 세브란스 의과대학도 있으며, ⑥ 서울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주관적인 견해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루프스(W. C. Rufus) 스웨어러(W. Swearer), 베커(A. Becker) 선교사들도 서울안을 지지하며 ① 지리적, 종교적, 철도교통 중심지이며, ② 대부분의 선교회들—남북 감리교, 북장로교, 영국성공회, YMCA, 성서공회, 동양선교회 등—의 중심지이며, ③ 교육의 중심지로 도서관, 동물원이 있고 공공 박물관, 특별강연회가 자주 열리며, ④ 모든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도이며, ⑤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⑥ 기독교기구의 중심지로 세브란스, 의과대학, 협성신학교, 유니온 성경학교, 성서공회 등이 있으며, ⑦ 한국 최대의 도시이며, ⑧ 공립 교육 기관과 연계되기가 쉬우며, ⑨ 기숙사를 설립함으로써 대도시의 부도덕한 영향력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⁴¹⁾

상대적으로 북장로교 J. E. Adams는 평양에 대학을 세우기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서울에 제2차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여 현재는 두 대학이 필요 없으며 두 번째 대학이 필요하게 될 시대도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⁴²⁾ 시설이 잘 갖춰지고 기초가 튼튼하고 잘 운영되는 하나의 대학을 세워야 하며 그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장로교 선교회들은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장소문제는 공개리에 정하기로 했다. 재령에 있는 샤프(C. E. Sharp) 선교사는 브라운에게 College Question에 대해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평양에 두자는 안에 동의한 선교사가 대부분이었고, 6명이 표를 던졌는데, 예외적으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Greenfield가 서울을 지지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Gale과 Clark가 평양에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는 안에 동조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³⁾ 그는 ① 한 대학설 혹은 두 대학설의 논란이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이며, ② 대학을 감리회와 연합해서 세우는 것에 반대하며, ③ 어디에 세우느냐 하는 위치문제는 세속교육이면 당연히 서울이 이점이 많으나, 기독교 대학설립의 참 목적이 교회자녀들의 종교생활을 보호하고 진작시키는 일일진대 평양이 그 적지인 반면 서울은 젊은이가 세속적 물질적 영향을 받기 쉬워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평양에 대학을 세우고 다른 교단들을 초빙하면 다른 교단들도 동조해올 것이지만, 굳이 그들이 별도로 설립하기를 원하면 그렇

38) Noble to Leonard, 1911. 9. 7.

39) G. Jones to Underwood, 1911. 12. 8.

40) 19 11. 15에 뉴욕에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평양 승실대의 위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평양을 그 다음으로 선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1) W. C. Rufus·W. Swearer·A. Becker, "Methodist Episcopal Missions Ac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12. 8.

42) Adams to Dr. Brown, 1911. 12. 19.

43) C. E. Sharp to Cr. Brown, 1912. 9. 27.

게 하게 해서 감리회 학생이 평양에 있으면 우리가 돌보고 우리 학생이 서울에 있으며 그들이 가르치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현재 교육적 상황이 하나의 대학만으로는 전혀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⁴⁾ 교육의 기초는 초등교육과 중등학교이며, 전국에 근 1,00개의 기독교학교에 2만 여 학생이 등록하여 다니고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와 교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도 해야 하며, 교육이 일반 비기독교인에게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을 더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교육사업에 소극적인 점, 일본으로 유학가기를 원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한국인을 위해 고등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개의 대학을 북쪽에 하나, 서울에 하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땅을 복음화하기 원한다면 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송도에 기독교계 중등학교와 부속학교가 있어 윤치호가 교장으로 남감리회의 관할 하에 있는데 초교과의 연합대학의 설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 서울이 대학교육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지방 도시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점, 서울에 대학이 세워져도 평양의 기초대학이 폐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중국의 대학의 경우 Dr. Mateer의 Tungchow 학교가 Shantung Union College의 분교였었는데, Weishien으로 옮겼다가 산둥성의 수도인 Chianfoo로 옮겼고, ② 감리회 학교인 Kuukiang의 William Nast College가 지금 Nanchang으로 옮기려 하며, ③ Shanghai의 성공회 학교(Anglo-Chinese)가 Soochow로 옮긴 점, 지리적, 정치적인 중심지인 사실이 한국 기독교교육정책의 책략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서울이 평양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교사들, 교재들, 강연회, 특수 기술자들이 서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접하기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 점,⁴⁵⁾ 교재나 등사 기구 같은 것도 서울 외에서는 구하기 힘든 점, 서울이 지리적, 정치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자연적, 진정한 교육적 중심지로 서울로부터 모든 것이 뻗어나가고 모든 시선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점, 로마가톨릭교회가 이제까지 교육을 등한시해왔다가 이제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황령으로 대학을 세우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점, 한국 청년들은 교육받기를 회구하고 정부보다 기독교계 학교를 선호하는 점 등등을 더 지적하였다. 그런 다음 두 개의 대학과 강력한 대학이 서울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언더우드는 이듬해 초 브라운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어 교육평의회 의 투표결과를 알리면서 재차 서울에서의 대학설립을 주장하였다.⁴⁶⁾ 그는 "하나의 대학 설립과 장소를 정하는 문제"에 관한 투표에서 2명이 결석한 가운데 5:5의 결과가 나왔으나 결석자 2명이 평양지지자여서 실제로는 7:5가 되는 셈이지만 평양지지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니며, 캐나다 선교회, 북감리교 선교회, 북장로교 선교회 서울기지가 서울을 지지하고 있고, 성공회도 연합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모든 선교부가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 선교부가 관심을 갖는 곳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특정 선교부가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재령의 W. B. Hunt(한위렴)는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양에 최대 규모의 가장 훌륭한(장로회)신학교가 있으며 대학이 세워지고 성공적으로 잘 성장해왔다고 주장하였다.⁴⁷⁾ 평양 주재 번하이젤(Bernheisel)도 브라운에게 호주장로교와 캐나다장로교 선교회들이 평양을 선호하며 서울을 선호하는 쪽은 북장로교 선교사들 몇 명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평양에 대학을 세워야 하는 다음의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① 현재로서는 한국에 하나 이상의 기독교대학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방인에게

44) Underwood to Brown, 1912. 12. 23.

45) 예를 들어 유춘(Yu Chun)은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물리·화학의 전공자로서 John D. Wells 학교(경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서울에서 전기와 가스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생물학의 최명환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본의 고등사범학교를 나왔고, 정부의 교육당국에도 발언권이 있고, 기독교기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고용했을 인물이다.

46) H. G. Underwood to Brown, 1913. 1. 6.

47) William B. Hunt to Dr. Brown, 1913. 1. 6.

는 복음을, 교육은 교인에게"(the Gospel for the heathen and education for the Christians) 전할 뿐, 교육을 미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치 않고, 불신자 교육까지 도모하는 대학이라면 하나로서 부족할 것이나 이 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우리는 평양에서 1907년 이래 대학을 운영해왔고 대학을 위해 좋은 건물을 갖고 있으며, 현재 5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관은 한국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도움도 받고 있다. ③ 서울에 대학을 세우면 평양의 대학은 망한다. 감리회가 여기에서 철수하고 서울의 대학에 합류할 것이다. 서울에 대학을 세우면 재정과 인력에서 많은 지원이 새로 필요하게 되는데, 현존하는 기관의 뿌리를 뽑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④ 기독교인 인구의 중심지는 서울에서 훨씬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⑤ 수도의 영적 분위기는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비도덕적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우리 선교회는 대학교육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⑥ 이북의 교회들은 대학이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⑦ 대학이 이곳을 떠나면 감리회와 다른 선교부가 계속 이 기관을 도울 것이고 건물들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장감연합위원회의 구성은 감리교가 1/3이나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도 평양에 대한 편견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이다.

평양 주재 Swallen은 Brown에게 근대 선교사들이 Union이란 말 대신에 Fed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⁴⁸⁾ 여러 선교기구들의 연합체(The 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를 조직하였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그런 다음 평양이 더 적지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는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리적, 정치적 중심지이며 최대의 도시이며 선교사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다고 하지만, 평양은 기독교인구의 중심지여서 학생들의 대다수가 북쪽에서 올 것이다. 서울에서는 1912년에 8~19명이 대학부에 있었으나 평양에서는 48명이 있었으며, 서울 피어선 성경학교에도 36명이 등록했으나 평양의 성경학교에는 180명, 재령은 100명이 등록했던 것을 보면 평양이 대학을 세우기에 환경이 좋고, 학교 사역에서 서울은 평양보다 번영하지 않았다. 배재학당 대학부가 장감연합으로 운영되었으나 20여 년이 지났어도 평양보다 못하다. 2~3개의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도 대학설립지로 가하지만,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대학의 위치가 평양이 되어야 한다. 연례보고서 53페이지를 보면 36:6으로 평양이 선호되고 있다. 평양은 교인 인구가 가장 많고 선교 초기부터 평양에서 연합해 대학을 운영해왔다. 감리교 선교부가 서울에서 따로 하는 것은 가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

Samuel Moffett도 Brown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이 온갖 악과 세속적 유혹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사역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⁹⁾ 그런 다음 평양을 선호하는 여러 선교사들의 명단—Whitemore, McCune, Bruen, Sharp, Welbon, Smith, Hunt, Rhodes, Mrs. Sharrocks, Whitings, Gale, Clark 등등—을 제시하고 전체 72명 중 48명이 평양을 지지하며 8명이 서울을 지지하고 16명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Adams, Koons, Roberts, Lampe, Philips는 평양을 지지한다고 설명한 후 대학을 서울로 옮기는 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이라고 못 박았다.

Blair도 브라운에게 하나의 대학을 한국에 설립할 경우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평양에 세울 것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다음의 이유들을 들었다.⁵⁰⁾ ① 서울에서 먼저 기독교교육이 시도되었다가 평양보다 뒤쳐졌는데, 대학을 서울로 옮기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② 북쪽이 교회성장 면에서 가장 왕성하고 1912년의 교회성장 통계도 평양, 선천, 재령, 강계 지역이 68,079명으로 성장한 반면 남쪽 선교지인 서울, 청주, 대구, 부산, 안동은 27,922명뿐으로 다섯 지역을 다 합해도 평양 한 곳만 못하며, 서울과 청주만 서울에 대학설립을 원하고 교회학교 청소년들도 7,027명 중 1,944명만 서울을 지지하고 있다. ③ 평양도 지리적으로 중심지나 마찬가지로이며 한국 같은 작은 나라

48) Swallen to Dr. Brown, 1913. 1. 9.

49) Samuel Moffett to Dr. Brown, 1913. 1. 11.

50) Blair to Brown, 1913. 1. 13.

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④ 한국의 인구가 점차 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이동하기도 한다. ⑤ 연합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감리교와 연합해서 학교를 운영했으나 실패로 끝났던 반면 평양의 숭실대학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⑥ 평양에서 이미 장감 선교기지 중간지역에 30에이커가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대학건물을 건립하고 있다. ⑦ 평양이 기독교 도시이며 교회는 위대한 기구란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으며, 강력하게 복음적이기도 하다. 복음적인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원한다면 그곳은 바로 평양이다. 서울은 정치적인 도시이고 종교적이지 않으며, 공적인 도시와 사회로서 수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기독교 사역을 방해한다. 온갖 계통의 구미인 관광객들이 선교사역을 헛되게 하고 있지만, 평양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선교사들 일색이다. ⑧ 서울에는 대학설립 부지도 없고 평양의 부지 같은 것은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으며, 평양에는 부속건물을 위한 부지도 있다. ⑩ 4개 장로교 선교부가 평양을 선호하며, 북감리회도 동조하고 있다. ⑪ 북장로교 연례회의에서 서울의 Gale와 Clark 선교사가 평양을 지지하여 서울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반대로 세브란스교장인 에비슨은 서울이 대학설립에 유리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접근이 편리하다, 지리적으로 중앙이므로 철도도 전국 어디에서나 모이기 쉽고, 평양은 북쪽에 치우쳐 있어 말이나 도보로 가야 하는 곳이 많으며, 평안도와 함경도 북쪽 지역에서만 접근이 유리하다. ② 학생들이 모여드는 자연적인 곳이다. 수백 년간 수도와 교육의 중심지여서 학생들이 어느 도시보다 서울을 선호한다. 중국에서 북장로교 선교회가 지역을 잘못 선택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③ 선교회의 영향이 공평하게 미쳐야 한다. 북장로교 선교회는 평양 위주로 선교활동을 펼치지만 북감리교 외에 다른 선교회는 평양에 주재하지 않고 있다. ④ 문화적으로도 과학적 강연, 도서관 등 서울이 유리하다. ⑤ 대학설립에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데, 지원금도 서울 쪽으로 몰리고 있다. 남감리교는 이미 \$50,000을 확보한 상태이다. 선교회 교육위원회 투표결과는 5:4로 서울이 우세했으나 의장의 가세로 5:5 동수가 되었고 부재자 3인 중 2명이 평양에 가세함으로 7:6이 되었으나, 감리교에서는 전혀 평양 지지세가 없었다.⁵¹⁾

그런 다음 서울측 주장과 평양측 주장을 정리하였다. 서울을 선호하는 이들은 평양의 유혹이 서울 못지않고, 평양은 온갖 종류의 사악한 것들이 번성한 곳이어서 학생들이 서울처럼 쉽게 몰드는 지역이라고 반박한다. 정치적 투쟁도 105인 사건처럼 평양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영적생활에서 평양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평양의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주장도 일시적 현상에 대한 것이고, 점차 평양 남쪽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⁵²⁾

평양을 선호하는 이들은 수도에 정치 투쟁이 심하고 여러 유혹으로 종교적 발전이 더 어렵다고 본다. 복음선교 사역이 서울보다 왕성하고 기독교청년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며 신앙생활을 서울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평양이 기독교 인구가 많으므로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⁵³⁾ 중국에서 산동의 북장로교 선교회가 대학을 설립했다가 등주로 옮겼고, 후에 교파연합으로 Chinanfu에 Union College를 세웠던 것을 보면 신중이 요구된다고 본다.⁵⁴⁾ 평양에서 북장로교 선교회가 숭실대학과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독교인의 활동도 가장 활발하며, 북감리회 선교회와 수년간 협력해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장한다.

언더우드는 1913년 7월 8일에 헬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세우려면 서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를 동조하는 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해서 서울을 주장하였다. 선교회는 교육평의회[Education Senate]를 통해 대학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이 비화되어 미국 선교본부들의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the Board)에 위탁되었다. 결국 1912년 6월 27

51) Avison to Brown, 1913. 1. 22.

52) Ibid.

53) Ibid.

54) Ibid.

일 장감 선교부의 합동위원회는 한국의 대학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①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두어야 한다. 장소는 선교사들과 협의한 후에 선교회가 결정한다. ② 만약 평양이 장소로 선택된다면 그곳에 있는 현재의 대학(숭실)을 보다 더 큰 규모의 연합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서울에 두게 된다면 평양의 학교는 중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 결정을 한 합동위원회는 1912년 7월 24일 교육평의회에 권한을 파기할 것을 선교본부에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이듬해 합동위원회는 1913년 2월 25일 선교회의 한국 교육활동을 검토하고 연합대학의 위치를 서울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선교본부는 한국에 하나의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각 교파가 협력하는 연합대학(Union College)의 성격을 갖게 하기로 하였다. 주한 선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였던 일이 본부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논쟁은 끝날 수 없었다. 1913년 2월 25일에 열린 합동위원회는 교육평의회로부터 안을 넘겨받고 다시금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교사들에게 먼저 투표할 것을 건의하고서 다수가 서울을 지지하면 그것이 최종안이 되므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지만, 다수가 평양을 지지하면 선교본부도 그 결정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⁵⁵⁾ 이 같은 서울 편향결정의 배경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의 연합사업을 위한 면이 고려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 선교사들의 교육평의회는 미국 본부들의 합동위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관련 교단들에 소속된 선교사 전원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28명 가운데 서울이 38표, 평양이 71표, 기권이 19표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합동위원회는 1913년 4월 15일자 선교본부 편지에서 감리교 선교부가 서울만을 주장하므로 교파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양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교지의 현안이 현지 선교사에 의해 순조롭게 결정되면 선교본부에서 추종하고 승인하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선교본부가 그 문제에 개입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타 교단과의 관계를 고려한 뉴욕의 북장로교 선교본부는 서울에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선호하여 1913년 위치선정 문제를 두고 주한 여섯 선교회들—남·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호주장로교—로 구성된 Educational Federal Senate(교육협의회)에 대해 공개투표를 요구하였다. 121명이 참석한 남자위원들만의 투표에서 21명은 투표치 않았고, 37명이 서울을, 63명이 평양을 지지하였다.⁵⁶⁾

Adams(Chairman of Board's Joint Committee on Education in Korea)는 브라운에게 보낸 1913년 8월 13일자 보고서에서 합동위원회가 지시한 1913년 8월 13일의 두 번째 투표결과를 통보했다. 이때 121명의 투표자격자 중 100명이 투표하여 63명이 평양을, 37명이 서울을 지지하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① 대학설립 위치에 대해 평양이 63명, 서울이 37명이었다. ② 평양에 한 대학을 설립하는 것(I)과 두 곳에 두 개의 대학을 세우는 것(II)에 관해 I과 II를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한 자는 7명, 둘 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자는 46명, I을 긍정하고 II를 부정하는 자는 2명, I을 부정하고 II를 긍정하는 자는 29명, I과 II를 다 부정하는 자는 15명, 도합 95명이 응답하였고, 5명이 무응답이었다. 남·북감리교 선교사들이 29:3으로 서울을 지지했고, 남·북장로교와 호주장로교 선교사들은 57:7로 평양을 지지하였다. 캐나다 장로교는 반반이었다.

뉴욕의 합동위원회는 이 투표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가운데 1914년 1월 10일 서울권고안이 비준되었다고 통보해왔다.⁵⁷⁾ 이에 주한 장로교선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은 합동위원회와 선교본부가 대학의 위치를 서울로 정하려 하는 것은 현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계속 반발하였다. 1914년 1월 21일 합동위원회는 대학의 위치를 거듭 서울로 결정하였고, 장·감 선교본부는 동년 2월 2일 이를 승인하였다. 선교본부는 1914년 2월 14일자로 주한 선교회에 통고하였다. 대학설립의 위치에 관해 주한 선교사들의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결정에 좌우한 것은 감리교 선교부의 입장이었다.⁵⁸⁾ 서울은 이미 2개

55) Baird, op. cit., p. 164.

56) "Educational Federal Senate", *The Minutes*, 1913, p. 38.

57) Harry Rhodes, op. cit., p. 479; H. H. Underwood, op. cit., p. 134.

58) "The Korea College Question", Report of Joint Committee, 1914. 1. 14; Arthur J. Brown이 주

의 중고등학교와 신학교, 또 의과대학과 간호학교가 세워져 있어 서로 연계될 수 있으리라는 실제적인 이유가 고려되었다고 통보하였다.⁵⁹⁾ 현지 선교사들의 다수 주장은 선교본부의 의견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주한 선교사들은 이에 불복해 44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만들고 1914년 4월 2일 미국 선교본부에 항의하는 전신을 보내 현지 선교회의 안을 무시한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합동위원회의 결정권을 문제삼았다. 미국의 합동위원회는 대학문제가 그들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8일에는 평양의 대학을 Junior College로 존속키로 하고 서울의 대학 설립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⁶⁰⁾ 뉴욕의 복장로교 선교본부는 주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교파의 선교사들과 연대해서라도 서울의 대학설립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측에 부여하였다.⁶¹⁾

언더우드가 서울을 대학설립지로 보았던 것은 한국이 관료사회여서 정치중심지가 모든 것의 중심지라는 것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New York University 출신으로 경이적으로 번창하고 마천루가 솟아나던 시기에 뉴욕에서 대학시절을 보냈으며, 신학교는 뉴욕의 교외에 있는 New Brunswick에서 다녔다. 그는 현대사회의 도시가 갖는 마력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선교지에 와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녔지만 종신토록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정치, 지리,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 대학이 있으면 더 넓은 사회의 단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한 선교회의 평양지지자들은 1914년 4월 14일 서울의 대학설립에 관한 대지 구입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일제히 항의하는 서한을 뉴욕의 선교본부에 보냈다. 선교본부가 동년 12월 8일자로 서울에 연합대학을 세우기로 하고 승실을 초급대학으로 운영할 것을 승인한다고 하여⁶²⁾ 현지 선교회로서는 승실의 폐교를 면했어도 초급대학으로의 허용에는 여전히 불만이였다. 문제의 와중에서 1915년 서울에서 연합대학이 창립되었다.

장로교 측은 경신학교에, 감리교 측은 배제학당에 대학을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양보치 않고 각 교단끼리 학생을 모집했다. 1915년 3월 4일 양 대학부가 통합하고 복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장로교가 연합하여 배제도 경신도 아닌 중앙지대의 종로 YMCA에서 연회전문을 개교하였다.

언더우드는 시종일관되게 두 개의 대학설립을 주장하였으므로 평양의 승실을 폐교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한국민의 서울 선호도를 알고 있었고, 서울이 감리교 선교회를 비롯하여 여타 선교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그러기에 소수임을 알고서도 평양의 안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관철시켰다.

이 대학은 1917년 4월 7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연회전문학교라는 교명으로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았다.⁶³⁾ 일제의 조선인 차별정책으로 대학이란 명칭을 붙이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학교육을 하였다. 1915년 연회전문이 서울 YMCA 건물에서 개교하였을 때 주한 선교회는 언더우드의 교장취임을 찬성 22, 반대 23, 기권 14로 부결시켰다. 또한 그의 아들 H. H. Underwood(원한경)의 교수 취임도 인준치 않았고, 예산안도 배당하지 않았다.⁶⁴⁾

얼마 안 있어 대학문제로 건강을 잃은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났고,⁶⁵⁾ 그 후 수년이 지나 1920년이 되도록 대학문제는 여전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주한 장로교선교회의 평양 지지자들은 마침내

한 선교회에 보낸 편지(본부서간 #196), 1914. 2. 14.

59) Ibid.

60) Harry Rhodes, op. cit., pp. 480-1.

61) Report of Deputations Sent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in the Summer of 1915, NY, 1916, p. 365.

62) Board letter #249.

63) H. H. Underwood, op. cit., p. 135.

64) Chosen Christian College, The Christian Movement, 1915, p. 369.

65) H.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P.135.

미국 장로교 총회에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해 이 문제를 탄원하였다.⁶⁶⁾ 대학문제는 미국 북장로교 총회가 현지 선교회의 활동에 대한 선교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평양의 숭실대학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한국에 근대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주한 북장로교선교회가 뉴욕의 선교본부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오랫동안 갈등하며 불화하였으나, 3·1운동 후 총독부의 신교육령 발표 등을 계기로 화해하게 되었다.⁶⁷⁾ 마침내 1923년에는 이사의 교체 및 선교회의 재정적인 참여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장로교, 남북감리교, 호주 장로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2명의 이사를 파송하였다.⁶⁸⁾ 이렇게 하여 연희전문이 장감 선교회들의 지원을 받는 연합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3) 연희전문 설립과 조선교육령

이 학교의 설립에 선교회 내부의 갈등만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학교는 설립과 동시에 총독부가 가하는 외부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은 선교회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⁶⁹⁾ 이에 장로교 선교회는 유예 기간 10여 년 동안 반대투쟁을 하여 성경교육과 예배시행이 끝내 불가능하게 되면 폐교키로 하였다. 한편 감리교 선교회는 종교교육을 방과 후 과외 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키로 하였다.⁷⁰⁾ 총독부의 이러한 규칙제정은 기독교 기피와 탄압정책의 일환이었다. 연희전문은 설립과 동시에 기독교 학교로서 최소한의 identity 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총독부 내무국장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가 신설대학에 신학과를 설치하여 전교생이 강의를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면 종교교육과 예배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⁷¹⁾ 이 제안에 따라 연희는 신학과를 설치하고 채플을 운영하며 성경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과의 학생들도 성경과목을 택해야 했다. 신학과가 설치됨으로서 사학법에 의해 총독부 인가가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대학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경배는 이렇게 보았을 때 "연세신학과는 연세 존립의 근간과 기독교대학의 사명을 보장하고 확인하는 지주로서 있어온 것이 확인된다"고 하였다.⁷²⁾ 그러나 신학과는 맨 처음에만 2명의 학생을 모집하였고, 그 후부터는 모집광고를 하되 학생을 뽑지는 않았다.⁷³⁾ 총독부를 향해서는 사학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평양측에 대해서는 장로회신학교와 신학교를 이원화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총독부의 사립학교법의 문제는 새로 부임한 사이토[齊藤實] 총독에 의해 3·1운동의 여파로 신교육령이 발표된 지 얼마 후에 해결되었다.

66) cf. Pamphlet: Presentation of Difficulties which have arisen in the Chosen(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67) Executive Committee, 1922, p. 89.

68) 朝鮮예수교장로회總會 第2回 會錄, 1923, p. 30.

69) Christian Education, General Survey, The Christian Movement, 1915, p. 368.

70) H. H. Underwood, op. cit., p. 203.

71) Harry A. Rhodes, "A Bible Course for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The Korea Mission Field*, sept., 1919, p. 196.

72) 민경배, 「언더우드와 연세정신」, 『진리와 자유』 43호, 2001, 가을, p 34.

73) 『연세대학교 백년사』 3, p 163.

3. 언더우드의 연희전문 설립의 차별성

1) 사회에 대한 개방적 성격

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은 1906년 가을 숭실중학교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기존의 중등교과과정에서 2년 더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었다.⁷⁴⁾ 숭실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했다. 이런 모습은 숭실이 미국 중서부의 작은 규모의 기독교대학과도 같은 모습을 지향했던 것을 알게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신학교 가기 전의 개학과정으로 거의 목회지망생을 위한 예비학교였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상당기간 동안 비기독교인을 받지 않는 기독교 공동체로 존속했다.⁷⁵⁾ 교과과정도 선택의 폭이 좁았다. 서구 근대대학은 그 유형을 ① 소수 엘리트 중심을 하는 기숙사 교육의 전통을 가진 영국형, ② 연구를 중심으로 삼는 19세기 독일형, ③ 위 두 전통에다 대학원을 두고 다양한 교육체계를 만든 미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⁶⁾ 선교초기부터 대학설립의 길을 닦고 있던 H. G. Underwood는 1900년초부터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는 꿈을 구체화해가면서⁷⁷⁾ 숭실처럼 신학을 위한 예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수용하여 산업 분야를 포함한 일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학을 지향하였다. 그 모델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대학이었다. 그 자신이 이 대학을 졸업했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12년에는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그의 외아들 H. H. Underwood도 이 대학을 졸업하였다.⁷⁸⁾

언더우드는 1915년 5월 7일 모교인 뉴욕대학교 총장 Elmer Brown 박사에게 뉴욕대학의 교수과정과 미국의 어느 대학을 본뜨는 것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동경제국대학의 제도를 따라야 하지만, 미국인이므로 미국의 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대학에 관심이 크다고 했다.⁷⁹⁾ 뉴욕 대학은 1851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재무장관을 지낸 Albert Gallatin에 의해 맨하탄에 세워진 사립대학이다. 그가 연전을 세웠을 때 商學科를 설치했던 것은 당시 정황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상업은 土農工商의 말미에 놓이는 평민의 직종이었다. 여기에서 연희는 대학 세속화의 경향을 띄고 있었다. 민경배는 기독교와 상업이라는 틀을 연희대학 안에 세운 것을 기독교의 핵심인 성육신 사상의 구현으로 보았다.⁸⁰⁾ 그는 이처럼 보다 넓은 의미의 대학을 지향하였다. 새로운 기독교 대학은 종교적인 교육은 물론 상업, 농업, 산업, 직업 문화적으로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⁸¹⁾

이처럼 같은 선교회 경영의 숭실과 연희는 차이점이 확인했다. 우선 숭실은 학교 창립 목적이 교회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데 있었으나, 연전은 상업, 농업 등의 전문학문을 보다 폭넓게 실시하는 데에 있었다. 이는 후일에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⁸²⁾ 따라서 개설과목도 수신, 일어, 영어, 영문학, 역사, 지리, 수학, 동식물 및 생리위생, 지질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교육학, 한문, 논리학 및 철학, 심리학 및 윤리학, 경제 및 사회학, 음악, 체조 등등의 교과

74) H. H. Underwood, op. cit., p. 136.

75) Ibid., p. 127.

76) cf. 馬越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77) "Educational Work",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0, p. 171.

78) J. H. Underwood, op. cit., p. 295. 이광린은 『초대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p.240.에서 1901년에 뉴욕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뉴욕대학은 신학과 무관한 곳이다.

79) 뉴욕대학 archives 소장. 이광린, 『초대 언어우드 선교사의 생애』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1), p. 241.

80) 민경배, 「언더우드 사역의 현장과 그의 영향 범위」, 『서울長神論壇』 10집, 2002, p. 144.

81) H. H. Underwood, op. cit., p. 131.

82) Ibid.

목을 개설하였다.⁸³⁾ 승전은 학생들이 장로교인 일색이었으나, 연전은 감리교인이 50%, 장로교인이 20%, 기타 교파가 10%, 비기독교인이 20%를 이루고 있었다. 승전은 거의 기독교인이었으나, 연전은 비기독교인이 25%나 차지하고 있었다.⁸⁴⁾ 이처럼 연전은 문호를 사회에 개방하였다.

연전은 1923년에 문과, 신과, 상과로 학교를 축소·개편하였다가 이듬해에 수물과를 다시 설치하였다.⁸⁵⁾ 농학과는 1921년 3명의 졸업생을 낸 뒤에 폐지되었고, 1930년대에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와 공동으로 농촌지도자양성소를 설치하였다. 음악과는 설치하지 못했으나 현제명(Rody Hyun)을 초빙하여 음악교육을 실시하였다.⁸⁶⁾

2) Ecumenical 정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을 위해 인수받고 파송된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국개신교회의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교지의 답사, 성경번역, 신학용어 선정, 신문발행,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설립, 새문안교회를 비롯한 지교회 설립, 총회구성, 선교공의회 조직 등등 수많은 기구를 창설하고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언더우드는 선교활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제도적으로 전도, 문서, 교육, 의료의 연합사역을 지향하고 교회를 통합시켜 단일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다.⁸⁷⁾ 언더우드는 서울에 세울 대학도 초교파적인 대학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1910년에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박사님의 보고서에 우리의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교육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무척 기뻐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박사님과 동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그 기점을 두게 될 초교파적인 기독교 종합대학의 설립을 희망하였습니다.⁸⁸⁾

사실 그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부터가 에큐메니컬적이었다.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국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였고, 프랑스에 유학할 때는 가톨릭교회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톨릭교회 분위기를 익혔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화란 개혁파 교회에 출석하며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집 근처에 구세군이 창설되자 그들의 활동에도 협조하였다. 마침내 선교사 파송은 북장로교에서 받았다. 그는 대학설립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브란스 의학교와 새 교회, 연희전문학교는 물론 감리교의 협성신학교까지 통합한 종합대학을 설립할 꿈을 꾸었다.⁸⁹⁾ 교파와 신학의 장벽을 넘는 연합정신의 발로였다. 피어슨 기념성경학교(Pierson Memorial Union Bible Institute)를 세울 때도 미국 북장로교회, 남·북감리교회 선교회와 연합하여 세웠고, 감리교의 협성신학교에서 개교시켰으며, 교수도 교파를 초월하여 선정하였다.⁹⁰⁾ 언더우드는 장로교 감리교의 교파 분별을 무시하고 장로교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

83) 『연세대학교 백년사』 I, p. 163.

84) *The Fif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85) 『연세대학교 백년사』 I, p. 172.

86) Ibid., p. 183.

87) Underwood의 Ecumenism에 관해서는 홍이표,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즘 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참조.

88) H. G. Underwood to Dr. brown, 1910. 7. 19. 김인수 역,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p. 507.

89) 『연세대학교 백년사』, p. 221.

부의 위임을 받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에큐메니컬 정신을 적극 추구하였다.⁹¹⁾ 장감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⁹²⁾ 연전 창립을 둘러싸고 선교사들의 서북세력과 서울세력이 대립하였지만, 결국 1920년대에 거의 모든 교단들이 협력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연합기구로서 연희전문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였다. 한국교회와 미국의 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후에 연합교회),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들이 참여하여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교과의 장벽을 넘어 전교회적인 관심과 재정적, 학생모집, 신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해방 후에는 신학과도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컬 신학을 표방하고 초교파적으로 교파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풍을 창립초기부터 수립하였다. 평양의 승실은 장로교란 한 교파만의 지원을 받았다.

3) 고등교육정책

선교사들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개요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선교사업의 일환으로서 "복음 전도는 이교도에게, 교육은 기독교인들에게"란 슬로건에 잘 나타나 있다.⁹³⁾ 특히 서북—황해도, 평안남 북도—지역에서 활동하던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세의 급팽창에 따라 교육선교보다는 복음전도를 우선시 하였다. 주한 장로교선교회는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선교활동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⁹⁴⁾ 이는 과도한 선교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금을 원칙으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정책을 지나치게 엄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교육사업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국인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⁹⁵⁾ 대구 주재 미북장로교 선교사인 J. Adams는 "우리 선교회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세속교육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나 능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은 기독교인의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⁶⁾ 그렇다고 기독교인 일색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지는 않았다. 남장로교 계통의 미션학교에서는 최소한 60% 내지 75%는 기독교인인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다.⁹⁷⁾ 교육문제에 일가견을 갖고 있던 William Baird 북장로교 선교사는 1897년 8월 13차 연례모임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교육계획안을 제출하였다.

1. 학교설립의 기본적인 이념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다양하게 가르쳐 학생들의 실생활의 여러 부분에 책임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2. 학교가 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학생들에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3. 미션학교의 주요 목적은 결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성장과 그 지도자의 육성에 두어야 한다.⁹⁸⁾

이 계획안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공식 견해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위의 3항에서 언급된 지도자 육성

90)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911. 10. 15., "신학교현상."

91) H. G. Underwoo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1886. 9. 17.

92) H. G. Underwood to Ellingwood, 1888. 3. 18.

93)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6), p. 66; Martha Huntly, *Caring, Growing, Changing: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NY: Friendship Press, 1984), p. 90.

94) W. M. Baird, "Education Work of the North Presbyterian Mission",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including Korea and Formosa: A Yearbook*, 1913, p. 456.

95) H. Namkung, "Ministerial Training", *The Korea Mission Field*, Nov., 1929, pp. 236-240.

96) A.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NY: Charles Scribner's Sons, 1919), p. 516.

97) George T. Brown, op. cit., pp. 66, 125. 75%는 1930년대에 결정된 규정이었다.

98) R. H. Baird, "Our Education Policy", op. cit., p. 116.

이 고급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부녀나 서민을 주요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그런 만큼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1895년 10월 초등학교는 기꺼이 설립하지만 고등교육은 필요할 때 추가할 것이며 영어교육이나 학교 자체를 위한 학교운영은 불가하다는 선교 정책을 채택하였다.⁹⁹⁾ 1896년 남장로교 W. D. Reynolds 선교사는 사역의 대상이 될 주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역자 양성원칙을 제시하여 백낙준 이래 한국교회사자들에게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들이 한국인 교역자들을 선교회의 강한 통제 아래 두려고 자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존경과 권위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¹⁰⁰⁾

이러한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일면은 고아원에서 출발한 서울 언더우드학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1890년 마펫(S. A. Moffett) 목사가 이 학교를 맡은 후 교명이 "예수교학당"으로 바뀌고 학교의 목적이 "그들의 고향인 시골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와 교사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¹⁰¹⁾ 1893년 그 후 밀러(F. S. Miller) 목사가 책임을 맡으면서 학교목표를 수정하여 "가장 유능한 소년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려면 그들에게 언문과 성경 이상의 것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서양지식에 관한 교과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¹⁰²⁾ 그러나 1897년 10월 선교회의 투표로 이 학교의 폐쇄가 결정되었다. 이 일에 언더우드, 베어드, 에비슨 의사 등 소수의 선교회 멤버들은 학교 폐쇄에 반대하였다. 언더우드는 1901년 서울 연못골에 경신학교[John D. Wells School]를 다시 세웠다. 그는 장로교 선교회의 이런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부임할 때부터 종합대학 설립의 꿈을 안고 내한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비견 때문에 10년 이상 다른 선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쟁하여 마침내 1915년에 경신학교와 배재학교 대학부들을 통합하여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세웠다.

4) 선교신학

언더우드의 선교신학은 오늘날의 용어로 *Missio Dei*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⁰³⁾ S. Moffett과 평양주재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신학은 *Missio Ecclesiae*(교회의 선교)였다. 그들은 교육선교 활동을 통해 교회지도자들을 훈련·양성하여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오늘날 선교신학의 개념에서 보면 바로 *Missio Ecclesiae*적이었다. 그에 비해 언더우드의 선교신학은 *Missio Dei*적이었다. 즉 선교활동에 있어서 의료사업이나 교육사업을 기독교정신으로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선교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한국 전역에서 그들은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 그들은 기독교 교육을 원하며 특히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 이 모든 번역사업과 문자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은 우리의 업무인 광범위한 교회의 사역에 덧붙여져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⁴⁾ 이러한 선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려는 대학의 지향점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학이 모든 선교회의 깊은 관심사가 되기를 바랐으며, 모두가 다 돌보며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¹⁰⁵⁾

99) C. A. Sauer, eds., *Within the Gate*, 번역본: 『은자의 나라 문에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p. 124-5.

100)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p. 227.

101) Rhodes., Harry A., op. cit., p. 112.

102) Ibid.

103) 최영근, 「초기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마펫 비교연구」, 연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16-7.

104)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s", *The Korea Mission Field*, Sept, 1908, p. 132.

105) L. H. Underwood, op. cit., p. 294.

5) 설립이념의 계승 발전

대학은 이념공동체이다. 이념의 구현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한다. 이념을 통한 전승의 계승과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철학적 기반과 정체성이 확실한 대학은 규모에 좌우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작용하여 계속 발전한다. 이념의 기반은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사활을 좌우한다. 대학의 발전과 존립 이유는 대학이 무엇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이념이 무엇이며, 어떤 철학적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연세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세대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정관 1 조는 학교의 목적을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며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세가 외관상으로 기독교대학이지만 세속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로 설립 목적으로 기독교적 이념을 내세우나 기독교대학의 본령인 기독교적 학문을 창달할 의지가 없다는 점, 원칙적으로는 기독교인 교수에 의해 기독교적인 교육내용을 추구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점, 채플이 성직자나 예배 위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회의 비중 있는 인사나 교수에 의해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을 제시되고 있다.¹⁰⁶⁾ 교수와 학생이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른다면 연세는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평가가 정당할 것이다.

미국의 19세기~20세기 초는 교육학적인 면에서 대학교육의 세속화가 이루어진 사상적인 대변혁기였다. 언더우드의 교육이념은 세속화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19세기의 복음주의자의 것이었다. 복음주의는 당시에 일반화된 신학적인 풍조였다. 그에 비해 원한경의 교육이념은 교육의 세속화라는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세속적 인문주의자의 것이었다는 평을 받았다.¹⁰⁷⁾ 19세기의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과학사상과 사회사상의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상(Protestant Establishment)을 품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19세기 중엽에 성취된 노예해방, 여성참정권, 금주법 등이 이러한 이상의 대표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기독교와 과학의 통합을 믿었고, 자연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시의 두 가지 매체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믿는 믿음에 기초를 두었다.¹⁰⁸⁾ 19세기 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미국 복음주의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독교에 근거한 사회의 변역이란 이상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에 근거하여 학교와 병원을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해서 미신적이고 전근대적인 봉건사회가 구습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런 부류의 선교사였다.

초기 주한 선교사들 가운데는 보다 보수적인 마켓 중심의 청교도적인 선교사 그룹과 보다 진보적인 그룹의 선교사가 있었다. 그러나 1920-30년대에 보수와 진보로 확연하게 나뉘었던 것처럼 나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가 되어서야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양과 서울 지역 선교사들 간의 대학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신학적인 대결이라기보다 강조점의 차이였을 뿐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아니었다. 언더우드가 구상한 서울의 대학은 기독교대학이면서도 교회의 교역자 직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필요가 없는 성격의 학교였다. 조금 더 폭넓은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전체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평양의 숭실대학 창설자

106) 장동민, 「Verites et Lebertas-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교육이념과 세속화 문제」, 『백석저널: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1, 2002, 봄.

107) Ibid., p. 74.

108) cf.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Chapter 1.

인 베어드도 진리의 탐구, 봉사의 정신, 자유의 구현이란 교훈을 취했다. 진리는 기독교복음에 의한 과학과 실업이며, 자유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였다.¹⁰⁹⁾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와 과학적 진리 영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갈등이 없이 복음적 진리와 영혼의 자유, 서구문명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믿었다.

미국대학 교수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나 AAUP가 1915년에 결성되고(초대회장은 John Dewey) 그간의 미국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교육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학문의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들이 말하는 과학적 관찰자들의 의견수렴(convergence)행위로서 객관적 관찰자들이 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교육을 위해 종교나 종파의식에 근거한 편견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인 과학정신에 민주주의 이상과 기독교신앙과 도덕을 결합한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 사회가 통합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문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문의 자유였다. 교회나 교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이성의 명령에만 따른다는 것이었다. John Dewey는 교과에서 세운 교육기관들은 교과의 교리와 그에 기초한 학문을 가르칠 수 있지만 진정한 대학(The University Paper)에서는 완전한 연구의 자유와 그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강의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¹¹⁰⁾ 미국 대학교수협회가 주장한 대학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연구를 증진시키고 인간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여기에 특정종교의 진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가르쳐(general instruction to student)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해 새로운 지식을 소개함으로써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 ③ 공적인 봉사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¹¹¹⁾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새 세대는 이전에 기독교와 서구의 학문을 동일시하던 것과 달리 사상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기독교에 근거한 과학과 계몽사상에 근거한 과학이 구분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적 교육의 세속화 변화를 주도한 곳은 연희였고, 그 선봉에 원한경이 있었다.¹¹²⁾ 그는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교육은 기독교인을 모집하여 선교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과정에 불과하였을 뿐, 기독교 외의 다른 학문이나 직업 교육에 관한 더 넓은 이상은 결여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 약하게 되었고, 교사도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라 복음전파를 주 사역으로 하는 선교사들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였다.¹¹³⁾ 원두우가 보다 넓은 개념의 대학상을 갖고 있었다면, 원한경은 그 보다 더 넓은 형태의 사역, 즉 종교적 사역뿐만 아니라 상업, 농업, 공업, 전문직업, 그리고 문화에까지 전 삶을 망라하는 기독교대학을 이루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새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도 정치적, 지리적 중심지인 수도에 있을 때 더 넓은 사회의 단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¹⁴⁾ 원두우의 이상이 근대과학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침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소박한 19세기 복음주의자의 이상이었다면, 원한경은 이미 현대주의의 대 근본주의의 이분법이 신학과 교육에 들어온 이후에 현대주의의 이념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원두우가 평양의 숭실과 서울의 연희의 차이를 폭넓은 것과 폭좁은 것으로 보았다면, 원한경은 그 차이를 본질적인 정신적인 것으로 보았다.¹¹⁵⁾

109) 『숭실대학교 90년』, pp. 67-75.

110) George Marsden, op. cit., p. 298.

111) Ibid., pp. 307-9.

112) 장동민, op. cit., p. 82.

113) H. H. Underwood, pp. 106-111.

114) Ibid., pp. 131-13.

원한경은 연전교장 취임연설에서 이러한 사고를 드러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를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모든 종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고, 이러한 자원, 사람들, 종교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단군 정신에 대해서도, 기자와 최치원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예수님께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동서교육에서 개발된 최고의 코스를 설치해 가르치겠다고 하였다.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할 것을 천명했다.¹¹⁶⁾ 원한경은 1934년 제3대 연전교장 취임연설에서 기독교적 가정, 촌락, 위정자, 정부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신앙보다는 근대학문을 전수하고 한국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¹¹⁷⁾ 그는 이념적으로 대립이 되는 사람들도 교수진에 포함시켜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백남운은 일본에서 근대학문을 닦은 맑스주의 경제학자였다.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한 조병옥은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였다. 대학의 본령인 학문의 고도한 발전을 위해서 교수 채용에서 최고의 교수를 모시기 위해서는 교원 채용의 기본조건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규칙을 초월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¹¹⁸⁾ 일제의 반공정책과 기독교의 유물사관 배척입장에서 백남운과 이순탁의 교수채용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원두우가 개신교 국교주의(the Protestant Establishment)의 이상을 가졌다면, 원한경은 미국 대학의 세속화 이후의 교육관을 가졌다. 원두우가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기반에 두고 그 위에 도덕적으로 고매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면, 원한경은 서구식의 자유주의 개념에 근거한 교육이념을 가졌다. 원두우에게 있어 '진리'란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리이며 그 진리에 기초해 실용적인 과학을 쌓는 것을 의미했다면, 원한경에게 있어 '진리'란 기독교적이란 단서가 붙지 않는 과학적 진리를 의미했다. 원두우의 자유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영적 진리였다가 그 자유에 기초한 미신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원한경의 자유는 인간이 가진 생업의 자유이고 국가나 종교 등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대 계몽주의의 자유였다.

그러면서도 원두우의 이념과 원한경의 이념은 차이점과 함께 연속성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적 학문이란 소박한 꿈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특성과 결합되어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세속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대학의 설립으로 원두우는 기독교에 기초하여 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의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원한경에게 이 점은 계승되었으나,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반드시 전통적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닌(이미 학문과 교육에서 세속화가 일어났으므로) 교회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원한경은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대해 일제가 종교적 자유를 말살하고 기독교계 학교를 일제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¹¹⁹⁾ 그러나 연전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연전이 인가받을 때와 신사참배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일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정신의 고수나 아니면 대중성의 확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연합운동이 복음주의에서 벗어난다거나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비판하였다. 한 세기 전에 연회전문을 통한 연합사업으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115) 장동민, op. cit., p. 85.

116) H. H. Underwood, "Inaugurate address", *The Korea Mission Field*, Dec., 1934, pp. 260-261.

117) Ibid.

118) 백낙준, 「1930년대의 연전교수진」, p. 116.

119) 『승실대학교 90년사』, op. cit., pp. 195-208.

원두우와 원한경, 둘 사이에는 일치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이 있다. 일치점은 복음의 진리, 자유, 연합 등이다. 의견상은 일치하고 차이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원두우, 원한경으로 이어지는 창립이념은 해방 후에 백낙준에게 이어졌다.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그는 연희와 세브란스의 합동에 주역이 되었다. 그는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으로 건학의 정신을 표면화시켰다.¹²⁰⁾ 그는 '진리'를 "모든 사물에 대한 고찰을 철저히 하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알아내며 모든 사물의 성질과 조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취해야 하며 진리 탐구와 과학은 서로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자유"의 이념에 대해서는 자유라는 것은 무지무식에서 또한 미혹과 의구에서 얻는 자유와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얻는 자유와 모든 편견, 私感과 불안과 威嚇에서 얻는 자유"라고 했다. 그리고 취임사의 끝에서 "우리가 구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쟁취하는 자유는 인간 생활상의 자유인 동시에 죄와 불의에서 벗어난 심령의 자유"라고 하여 전통적인 건학이념을 다시 되새겼다. 처음부터 전승된 건학이념을 재천명하였다.¹²¹⁾

언더우드는 선교의 大家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약관 25세였다. 선교의 경험도 없었고, 목회의 경력도 없었다. 따라서 뚜렷한 선교정책도 없었고, 목회관도 없었다.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원하기 전 무디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감격하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에 자원하여 선교사가 되었다. 다만 선교사로 한국에 부임했을 때 당시 한국에 필요한 것이 대학설립이라는 현실과약 능력과 비전과 선견지명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선교사들이 초등교육의 비전에 머무를 때 일류 종합대학의 꿈과 전통적인 협의의 기독교대학이 아닌, 그것도 수도 서울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비록 약세였지만 자기의 뜻을 굳게 정하고 선교정책에도 도전하면서 설득하고 추진해나갔다. 그가 반대에 직면하고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갔을 때 그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줄테니 한국으로 가지 말라, 대학설립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주변의 권고를 뿌리치고¹²²⁾ 지속적으로 대학설립 문제에 매달렸다.

이런 자기 헌신 위에서 미국 교회와 주변에서 받은 도움도 컸다. 그의 형 John T. Underwood와 Mr. L. H. Severance 및 John L. Severance 부자를 비롯한 자들의 거액 회사는 한국근대 기독교대학의 창립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경제적 뒷받침과 대학구성원의 희생이 한국의 근대대학을 탄생시킨 것이다. 김인회는 「기독교교육 백년과 한국교육」이란 글에서 "11세기 전 기독교학교들은 가장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 가장 혁신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을 교육하는 일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를 재생 확산하는 일에서 어느 다른 교육기관들보다도 앞장설 수 있었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¹²³⁾ 일제시대에 연희전문은 당시 식민지 관학에 대항하여 反官學 Academism의 대표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형식적으로 연희는 전문학교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있었고, 역학적으로 일제 관학 Academism에 맞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였다.¹²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한국 근대대학의 선두주자들이었다. 그러나 현금의 사회적 위상이나 평판을 생각하면 설립당시가 높고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경이적인

120) 백낙준, 「연세학원에 없어진 것과 생긴 것들」, 『백낙준전집』 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p. 131.

121) 백낙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취임사」, 『백낙준전집』 2, pp. 29-30.

122) L. H. Underwood, op. cit, pp. 294-5.

123) 김인회, 「기독교 100년과 한국교육」, 『한국교육의 정신과 실현』 (서울: 문음사, 2000), p. 46.

124) 이준식, 「연희전문학교와 근대학문의 수용 및 발전」,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p. 25.

성장과 발전을 했다는 한국교회가 왜 대학이나 병원 하나도 설립당시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공립에게 양도하게 되었던 것일까? 세계최대의 교회는 거의 서울에 있는데, 왜 기독교대학이나 병원은 설립 때보다 못한 평판을 받게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오랜 전통 관료사회라는 점이 작용하여 관학에 대한 선호도가 작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지도자, 기독교인, 대학교육이 선교의 일선인 직접 선교가 아니고 간접선교라는 의식이다. 언더우드가 가졌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선교 개념이 너무 강하다. 대학이 선교의 가장 장기적이고 효율적이고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선교의 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4. 결론

21세기에 연세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더우드 기독교정신의 구현이란 건학이념이 재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회들이 교파를 불문하고 연합하여 협조하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서울에 많은 데 그 교회가 대학 하나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게 못만든다는 것은 대학이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간접선교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교육선교가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의식하고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재도약 하는데 일치단결하여 노력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연회와 세브란스는 다른 기독교사학들보다 총독부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을 인정치 않고 기껏해야 실업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밖에 인정치 않던 시기에 언제나 대학교육을 지향하고 있었기에 국학, 이학, 의학 교육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해방 후 종합대학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연세가 다른 기독교대학들보다 발전한 요인은 우선 외적으로 한국의 중심인 서울에 대학을 세웠다는 점에 있다. 기독교적인 대학이면서도 폭넓은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폭넓은 교육과 여러 교단의 자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의 성격은 미국 중서부의 대학을 모델로 삼지 않고 좀더 넓은 개념의 대학으로 정하였다. 학문의 폭을 넓혔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설립이념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서구대학처럼 시대에 따라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즉 전승의 계승발전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선교초기에 설립된 연세가 설립될 때의 교세와 현재의 교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인적자원이나 경제적 규모는 언더우드가 가졌던 에큐메니컬 정신이 구현된다면, 즉 전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대학이 된다면 국립대학을 넘는 명실공히 세계로 뻗어가는 연세가 될 것이다.